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오늘 성당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하는 '전통맨' 유적비디오 첫 촬영했다.

약 1시간동안 계획하고, 캐스팅하고 촬영장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을 끝낸 가운데, 드디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촬영이 시작되었다. 다른 날처럼 많은 스태프들이 촬영을 하고, 장소를 잘 마련해 주어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2012년 강남스타일 유적비디오 촬영 이후 수번대로 주변은 훨씬더 사람들이 강하게 유적비디오 없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많이 되었다. 오늘 촬영장이기 때문에 너무 낯설고

장면보다는 간단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예상 외로 촬영 시간이 리얼리티에서 스태프들과 인위자들이 자진 도움을 받으며 미안한 아들이 많이 들었다.

2시부터 6시까지 전통맨 유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6시부터는 전통맨 공연 연습이 들어갔다. 5월 18일 토요일 '교사의 날'을 기념하여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생생한 마음이 대외로 수업을 했고, 8명의 학생들과 함께 전통맨 공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4시간동안 긴 촬영을 한데다 지치고 힘들었는데,

공연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준 수미랑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다.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그날 누가 무엇인가에 대해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추억이 되 것 같다.

항상 모든일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항상 해야 할 일을 생략하지 않길 바란다.

